

“하루 하루 묵묵히 배우고 나누는 삶 이어가고파”

공중장식화 화원 이수자 이맹자작가, 제58대 신사임당상 수상

공중장식화·민화 등 전통회화 맥 이어오며 후학 양성 소외된 이웃 꾸준한 사회봉사·배움으로 삶 가치 실천



“제 자리에서 묵묵히 살아온 삶을 인정받은 것 같아요.”

민화 작가이자 공중장식화 화원 이수자인 이맹자(70·사진) 씨가 제58대 신사임당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전통 민화와 공중장식화 계승은 물론, 수십 년간 이어온 사회봉사 활동과 꾸준한 자기계발이 함께 평가받았다.

대한여성성소비자연합은 최근 신사임당상 예술성과 삶을 기리는 ‘신사임당상’ 수상자로 이맹자 작가를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신사임당상은 뛰어난 예술 활동을 남긴 신사임당의 현대적 여성상을 조명하기 위해 1989년 제정된 상이다. 올해 시상식은 11일 오전 서울 세종대왕기념관 공중의례관에서 열리는 ‘신사임당의 날’ 기념행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그는 전통민화와 창작민화, 공중장식화까지 아우르며 우리 전통 회화의 맥을 이어온 작가다.

특히 왕실의 권위와 안녕, 번영의 의미를 담은 공중장식화를 꾸준히 연구하며 작품 활동을 이어왔다.

또 작가는 1987년부터 출소자 갱생보호위원회 활동을 비롯해 범죄피해자 상담, 다문화가정 지원, 여성긴급전화 상담 등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을 이어왔다. 현재는 송연전통미술연구소를 운영하며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 7일 동구 작업실에서 만난 작가는 인터뷰 내내 ‘공부’와 ‘소통’을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 “누구를 만나도 소통하려고 공부를 계속했어요. 알아야 사람 이야기기도 들리고 이해도 되잖아요.”

법학 공부 역시 출소자 상담 활동 과정에서 시작됐다고 했다. 상담을 하며 법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후 사회복지와 청소년 상담, 범죄피해자 보호 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 공부를 넓혀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대를 이해하려고 공부를 이어온 것 같다”며 “봉사도 결국 사람을 이해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작업실에서 작업 중인 송연 이맹자 작가

(작가 제공)

전통미술 작업에 대한 애정도 깊었다. 그는 공중장식화 작업에 대해 “수천 명의 인물을 그려야 하는 작업이라 쉽지 않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작업이라고 생각했다”며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그 시대 문화와 생활, 의례까지 담고 있는 기록이다. 갈수록 우리 것이 사라지는 것 같아 더 붙들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서예를 시작으로 문인화와 민화, 공중장식화까지 작업 영역을 넓혀왔다. 공중장식화를 배우기 위해 8년 동안 매주 서울을 오가며 공부를 이어가기도 했다.

오랜 암 투병 속에서도 작업과 공부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아프고 나서 오히려 봉사를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지금도 걱정보다는 하루하루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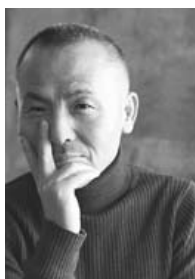
앞으로는 암 환자들과 함께하는 무료 민화 강습과 치유 공간도 준비하고 있다. 그림을 배우고 함께 음식을 나누며 마음 편히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계획이다.

끝으로 작가는 “상을 받고 나니 더 무거운 마음도 든다”면서도 “그래도 내가 살아온 시간을 누군가 좋게 봐준 것 같아 감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겨울 미술관, 마음의 색을 건다

강연의 케빈스상세



지난 1월, 가족과 함께 뉴욕 현대미술관을 찾았다. 맨해튼의 겨울은 무척에 가까웠다. 우리는 회색의 거리를 지나 미술관의 문을 열었다. 문 안은 예상과 달리 밝고 분주했다. 인파 속에서 그림을 마주하는 일은 차가운 계절 한복판에서 잠시 온기를 만나는 경험처럼 느껴졌다.

가족과 함께 전시실을 걷는 일은 서로 다른 온도의 색을 나란히 세우는 것과 닮아 있다. 나는 먼저 작품을 본다. 아내는 구조와 공간의 질서를 읽는다. 작품들은 무엇을 보라고 지시하지 않는다. 대신 조용히 묻는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별이 빛나는 밤’ 앞에서 아들 준범은 오래 서

있다가 말했다. “이건 풍경이 아니라 에너지 같아.” 스무 살 청년의 눈에는 소용돌이치는 하늘이 감정의 파동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나는 붓질의 결을 따라가며 생각했다. 고흐가 그린 것은 밤하늘이 아니라, 흔들리던 자신의 내면이 아니었을까. 그림은 멈춰 있지만, 색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다.

아내는 마크 로스코의 화면 앞에서 한참을 떠나지 못했다. 겹겹의 색과 어둠이 맞닿은 자리에서 그녀는 낮게 말했다. “이 앞에서 서 있으면 마음이 가라앉아.” 로스코의 색은 형상을 지우면서도 깊은 감정을 남긴다. 설명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마음에 닿는 색. 나는 그 앞에서 문득 생각했다. 나의 색이 시간을 따라 한 겹씩 쌓이며 감정을 기록해 왔다면, 그의 색은 오래 응축된 침묵을 한 번에 열어 보이는 방식에 가깝지 않을까.

현대미술은 종종 어렵다고 말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정답을 갖춘 질문의 형식일 뿐이다. 작품 앞에서 멈춰 서는 시간, 서로 다른 해석을 나



누는 대화, 그리고 잠시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침묵. 그 모든 과정이 이미 예술의 일부가 된다.

겨울비 내리는 미술관을 나서며 생각했다. 명작을 본 하루라기보다, 서로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한 시간이었다고. 차가운 뉴욕의 공기 속에서도 우리 안에는 각자의 색이 또렷이 남아 있었다. 그 색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다.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강연)

하얀 밤 피어난 배꽃의 기록

황토회 스케치전, 오는 30일까지 나주 여천갤러리

봄의 끝자락, 눈처럼 흩날리는 배꽃의 순간을 담아낸 스케치 전시가 나주에서 펼쳐진다.

황토회의 ‘나주 배꽃 스케치전 - 하얀 밤의 기록’이 오는 30일까지 나주 여천갤러리(최선정형외과 3층)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나주의 대표적인 자연 자산인 배꽃을 주제로 꽃이 피고 지는 잘나의 공기와 빛, 시간의 흐름을 스케치 작업으로 담아낸 자리다. 자연이 지닌 고유한 아름다움과 나주라는 지역의 정체성을 시각예술로 풀어내 관객과 공유하고자 기획됐다. 전시에는 정은기·이진표·신동훈·정철·백은영·오금숙·곽민조·박석규·신동언·김수복 등 황토회 회원 11명이 참여해 총 35점을 선성된 스케치 작업이 주를 이룬다. 작가들은 봄이라는 계절 속에서 쉽게 사라지는 순간을 기



고희자작 ‘배꽃’

록하며, 배꽃의 섬세한 형태와 계절의 감성을 조용하면서도 깊이 있게 전달한다.

고희자 황토회장(송원대 교수)은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하얀 배꽃 사이를 거니는 여유를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대리점 완전독점 대동강맥주 공급업체 공고 모집

이미 아는 분들은 다 아는 아시아 최고의 라거!!!

국내 최초 (북한)대동강 맥주가 새로운 시장의 문을 엽니다!

- 대동강 유역의 맑은 물과 엄선된 보리로 완성된 깊은 풍미
- 마케팅 없이도 고객이 먼저 찾는 이름
- 지역별 한정 대리점 모집을 통한 독점 안정적인 영업권 보장
- 불황에도 대동강 맥주는 출시전부터 예약문의가 폭주하는 검증된 아이템입니다

- 모집대상 주류유통 유경험자 및 신규 사업 희망자(주류 면허 없어도 됨)
- 지원내용 영업권역보장 홍보물지원, 광고지원
- 특 전 초기 계약 시 계약금 최소화

성공은 타이밍 입니다! 대동강 맥주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각 시·군 선착순 모집★ 문의 | 자연과 생명 연구소 080-374-5046